

Shell, 11월 MEK 한국공급 중단

Sasol Germany 10월 정기보수 ... 국내수요 따라 인상폭 결정

10월초 kg당 50-7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MEK 가격이 당초 목표했던 830-870원보다 낮은 820-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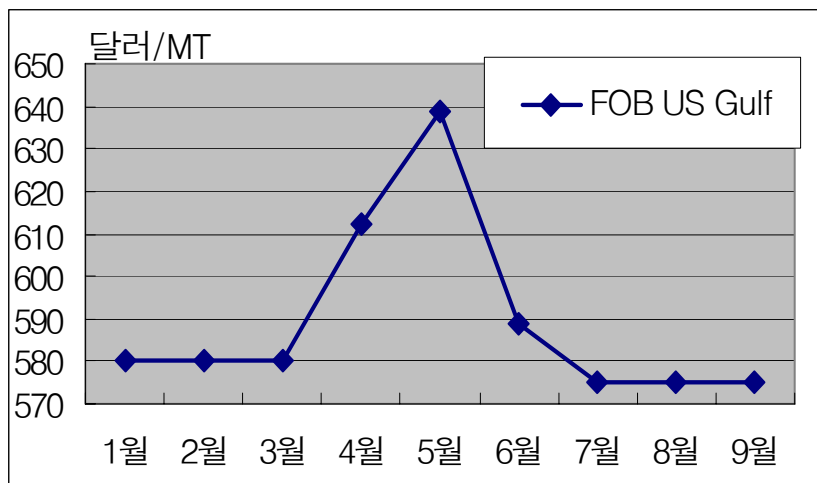
MEK 관계자는 “MEK 공급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10월 가격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요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상승폭이 적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1월 MEK 공급은 10월보다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여 가격상승이 전망된다.

11월 MEK 수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Shell의 Cargo가 11월 들어오지 않고 Sasol Germany가 10월 정기보수로 국내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Shell에서 MEK를 공급받는 한 무역상은 “Shell의 11월 Cargo가 들어오지 않아 MEK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고 전했으며, Sasol Germany에서 MEK를 공급받는 SK 관계자는 “Condea Sasol Germany의 10월 정기보수로 11월 MEK 공급이 30%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11월 MEK 가격상승폭에 대해 한 수입상은 “최근 MEK 수요가 최근 경기침체로 줄어든 상황이라 정확한 가격인상폭은 언급할 수 없으나 적어도 800원 후반까지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다른 수입상은 “11월 kg당 900원까지 인상될 것이 확실시 된다”전했다.

MEK 가격추이(2003)



모든 MEK 수입상들은 가격인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11월 MEK 가격이 최소 800원 후반대에서 최대 9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MEK는 8월 이후 국내공급이 줄어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매월 가격이 인상됐는데, 한 수입상은 “MEK의 공급차질은 8월에 있었던 Tonen의 MEK 플랜트 정기보수와 10월의 Sasol의 정기보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MEK는 정밀기계에 소비되는 제품과 잉크 등에 사용되는 제품의 가격차이가 있으며, 일본제품과 타지역 제품간의 가격과 용도별 수요처가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1/05>